

7월 6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7월 6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뉴욕증시 휴장	3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는 공휴일인 독립기념일을 맞아 하루 휴장.
日 내년 예산, 채권 매출이 세수 초과 전망	부채 조달을 통한 예산 조달이 세수를 넘어서는 것은 종전 이후 처음이다. 이는 최근 경기후퇴로 세수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특히 일본 정부는 주요 예산재원을 2년 연속 부채에 의존해야 할 전망이다. 지난 해 회계연도의 일본 정부 세수는 44조엔까지 줄었고 올해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가을 마련될 2차 추가경정 예산에서 세수 전망은 46조엔까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태.
中 국부펀드, 加 최대 광산업체 지분 17% 인수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텍리소스는 은행 채무를 갚기 위해 CIC로부터 17억400만캐나다달러(15억달러)의 투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를 통해 CIC는 텍리소스의 클래스 B 하위 의결권 주를 주당 17.21캐나다달러에 인수, 의결권 6.7%도 확보했음. 텍리소스는 "이 같은 지분 매각은 중국의 주요 금융 투자자와 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라고 언급. 또 "CIC는 1년 동안의 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광산, 금속, 광물 관련 경쟁업체에 지분을 매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음.
2차 건설·조선사 3곳 워크아웃 졸업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차 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을 받은 업체 15곳 가운데 3곳은 워크아웃을 졸업, 4곳은 워크아웃을 중단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송촌종합건설, 영동건설, 중도건설, 태왕 등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음. 신도종합건설, 화성개발, 르메이에르건설, 한국건설, 새한종합건설, 대원건설산업, 세코중공업 등 7곳은 경영정상화 계획을 확정했음.
올해 車수출 206만대 전망...`6년래 최저	반도체와 함께 수출효자 품목인 자동차산업의 이같은 암울한 전망은 국가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5일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가 작성한 '2009년 하반기 경영환경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수출은 작년대비 23.2% 줄어든 206만대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03년 181만4,938대를 기록한 이래 6년만에 최저치. 이중 선진국으로의 수출은 작년보다 21.0% 감소한 88만4,000대, 신흥국으로의 수출은 전년대비 24.8% 줄어든 117만6,000대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관측.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